

AT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 "33번(배준호) 인상적이었다"

등록 2023.07.27 23:00:54



[서울=뉴스시스] 권창희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시메오네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23.07.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스시스] 박지혁 기자 =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가 무더위 속에 펼쳐진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친선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이끈 팀 K리그는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이순민(광주)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빠르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균형을 맞췄고, 후반 추가시간 기어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느낌은 좋았다. 전반에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후반에는 아니었지만 선수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느낀 점이 다행히도 VAR이 있어서 평소 경기에는 많은 오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팀 K리그에서 인상적이었던 선수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선수들에게 집중하느라고 잘 보지 못했다. 내일 다시 보면서 오늘 뒀 한국 선수들을 관찰해볼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면 틀릴 것 같다. 전반에 뛰었던 33번 선수가 수비수 사이에

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등번호 33번은 올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멤버인 배준호(대전)다.

홍명보 팀 K리그 감독은 이날 전반에 국내선수, 후반에 외국선수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선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꼈다. 모두 잘했다. 후반에 골도 많이 터지고 관중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선사한 것 같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되는 좋은 경기였다"고 했다.

이어 "전반전에는 우리가 점유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고, 찬스도 많았다. 좋은 경기였다. 그러나 후반에는 그러지 못했다. 페널티킥을 주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본다"고 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9분 카를로스 마르틴의 골에 힘입어 2-1로 달아났지만 이어진 수비에서 제르소(인천)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후반 44분 팔로세비치(서울)가 침착한 페널티킥으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는 30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 시메오네 감독은 "세계 최고의 팀이다. 긍정적인 면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